

# 油價下落의 影響과 對應戰略

韓國産業銀行

## I. 序

(單位: 百萬배럴/日)

	1980	1981	1982
世界石油需要	48.9 (100)	47.0 (96)	45.5 (93)
國內需要	0.501	0.506	0.500

- 1970年代를 통하여 産油国(특히 OPEC)에 의하여 이루어진 폭발적인 石油價格의 引上은 全世界의 石油波動의 衝擊을 가져 왔음.
- 더우기 우리 나라는 이 期間이 後進国의 狀態에서 開途国 先頭走者로 的 過程을 거치는 時期였기 때문에 經濟開發 및 産業政策 遂行上 많은 隘路點과 問題點을 派生시켰음.
- 그러나 1973년에 惹起된 第1次 石油波動以後 10年만에 世界 石油市場은 安定局面을 回復하였으며, 下向硬直化되어 있던 油價가 계속 下落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음.
- 이같은 油價引下事態는 일단 國內 經濟 및 産業活動에 플러스 要因이 되고 있으나, 油價는 油價 사이클에 의하여 3~4年內에 다시 上昇될 展望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油價引下時代에 對應한 새로운 産業政策方案의 摸索이 現 時點에서 講究되어져야 할 것임.

### ○OPEC의 供給過剩

—OPEC은 供給過剩防止를 위해 生産上限線을 設定하였으나, 産油国의 財政圧迫에 따라 生産上限線을 超過하여 生産하고 있는 實情임.

- 生産上限線(82.3): 17.5百萬배럴/日
- 財政收支均衡을 위한 必要産油量: 22.7 百萬배럴/日

### ○非OPEC國家의 産油量 漸增

—英國, 멕시코 등의 産油量 增加로 全体的으로 供給能力 過剩

- 非OPEC産油量: 21.2百萬배럴/日('81)  
→ 24.3百萬배럴/日('82)

○이같은 石油情勢의 變化로 原油의 現物市場價格은 公示價格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消費国은 現物市場選好, 産油国은 公示價販賣를 努力하고 있음.

—現物市場價格推移(Arabian-Light 기준)

1982.1	1982.8	1983.1	1983.2
34.1 \$/Bbl	33.0	30.4	28.0

○특히 OPEC은 最近의 供給過剩現象과 油價引下壓力, 超過生産과 割引販賣, 財政的 逼迫과 政治的 對立등 對內外的인 諸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OPEC石油相 特別協議會('83.1. 23~24)를 開催하였으나, 産油 및 油價政策에 어떤

## II. 油價下落背景 및 展望

### 1. 石油情勢變化

- 石油需要的 漸進的 減少
  - 先進国의 景氣回復遲延 및 積極적인 消費節約으로 消費는 繼續 減少.

한 合一點을 찾는 데에도 모두 失敗하였음.

○결국 83年3月, OPEC은 價格體系의 무질서한 붕괴를 防止하기 위하여 런던 OPEC全體會議(83.3.3~14)를 開催하였고, OPEC公示價格을 每桶당 29달러로 引下하기에 이르렀음.

- OPEC創設以後 最初의 基準油價 引下
- 實質적으로 붕괴되었던 各國別 產油쿼터量 再調整

## 2. 제네바 OPEC 會議의 決裂

가. 會議內容

○제네바 OPEC會議('83. 1. 23~24)는 OPEC 基準油價(每桶당 34달러)維持를 基本前提로 하고, 다음 事項을 議題로 採択하였음.

- 產油量減縮
  - OPEC全體產油量 1百萬배럴/日 減縮  
(現行 1,850萬배럴/日→1,750萬배럴/日로 調整)

● 國家別 產油쿼터量 調整

- 油種間 價格差(Differential) 調整

○페르시아灣產油國과 아프리카產油國의 意見對立  
- 페르시아灣 產油國(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들은 사우디가 쿼터량을 大幅 減縮(現行 7百萬배럴/日→5百萬배럴/日)하는 대신 Differential을 上向調整하자는 案을 提示

- 아프리카 產油國들은 生産上限線 1,750萬배럴/日 確定, 基準油價 및 Differential의 現水準固守등을 代案으로 提示

아프리카產油國(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

나. 結果

○알제리, 리비아, 나이지리아等 高質油 生産國들이 競爭力弱화를 우려하여 油種間 價格差 擴大를 적극 反對.

○現在 國別쿼터의 3배에 가까운 量을 超過하여 生産하고 있는 이란이 減產要求를 拒否

- 生産쿼터量: 120萬배럴/日
- 現行生産量: 320萬배럴/日

○따라서 同會議의 減產, 國別쿼터, Differential 調整 등은 모두 失敗함

- 基準油價維持 努力이 限界에 達함
  - 油價引下의 可能性 高潮, 現物價 統落
- 石油價格카르텔로서의 OPEC 붕괴 危機

## 3. 런던 OPEC 會議의 評價

가. 會議內容

○런던 OPEC全體會議('83. 3. 3~14)는 OPEC 體制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제네바 OPEC會議에서 결렬된 議題를 다시 基本議題로 採択하였음.

- 油價決定
- 產油量決定
- 各產油國別 生産쿼터 調整

○產油國間의 意見對立

- OPEC會員國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4個國을 中心으로 相互 意見對立을 보임.

- 특히 이란은 34달러/배럴의 基準油價 固守를 主張하며, 總產油量을 1日 1,400萬배럴 水準으로 減縮할 것을 提議

- 사우디아라비아는 나이지리아의 油價 上向調整이 缺하는 基準油價를 29달러/배럴까지 下落시켜야 한다고 主張.

● GCC會員國이 이에 同調함

- 베네수엘라는 生産쿼터量 下向調整에 적극 反對.

● 自國의 財政赤字擴大를 우려함.

● 인도네시아가 이에 同調.

國別產油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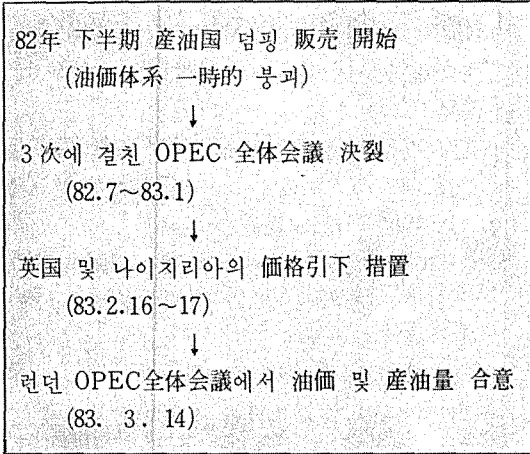
(單位: 萬배럴)

	新 쿼터 (83.3)	82.3쿼터	國別增減量	1977年 生産量
사우디아라비아	連動	715	△	910
이 란	240	120	120	560
이 라 크	120	120	-	230
U A E	110	100	10	190
카 타 르	30	30	-	44
쿠 웨 이 트	150	80	70	190
알 제 리	75	65	10	110
나 이 지 리 아	130	130	-	200
리 비 아	110	75	35	200
인 도 네 시 아	130	130	-	160
베 네 수 엘 라	167.5	150	17.5	220
가 봉	25	15	10	22
에 파 도 르	20	20	-	18
計	1,750	1,750	사우디減量	3,050

나. 結果

- OPEC 公示價格의 引下  
從前 34달러/배럴 → 29달러/배럴
- OPEC 總產油量의 決定  
1日 1,750萬 배럴
- 各國別 產油쿼터에 合意
- 다. 런던 OPEC 會議의 意義
- 生產 및 價格 카르텔로서의 OPEC 機能 붕괴危機 克服

- OPEC 創設 以後 最初의 OPEC 公示價格 引下  
— 油價下落 時代의 到來  
— 長期化될 可能性 示唆
- 사우디, 生產調整者(Swing Producer)로서의 役割 遂行  
— 사우디는 OPEC 產 石油에 대한 需要를 감안하여 自國의 產油量을 任意 調整  
— 사우디가 產油量 減縮을 甘受하고 이란 등 餘他 產油國의 生產 쿼터를 上向 調整함.



4. 油價展望

가. 短期展望

- 油價再引下 可能性의 尙存
  - 「需要減退」 「供給過剩」의 世界石油市場 持續
    - 83. 3月 OPEC 石油需要: 1,400萬배럴/日 水準 下廻. 런던 OPEC 全體會議 產油量: 1,750萬배럴/日 合意
    - 따라서 아직도 供給物量 過剩 狀態임.
  - OPEC 內部要因
    - 이란의 油價割引 可能性  
이란은 OPEC 油價決定에 反對, 特例條項으로 除外되었음.
    - 外債負擔이 심한 OPEC 會員國(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等)의 協定 준수 與否
- 油價下落의 期待에 따라 世界 主要國의 備蓄量 縮小와 아람코(엑슨, 모빌, 텍사코, 소칼)의 石油買入 縮小 움직임.
  - 世界 石油 備蓄量  
1980年: 5,083 百萬배럴  
1981年: 4,033 "  
1983 1/4: 3,640 " (80日分)
  - 아람코 石油 買入量  
1980~81 : 4 百萬배럴/日  
1983. 3月以後 : 1~1.5 百萬배럴/日
- 英國, 노르웨이 등 非 OPEC 產油國의 油價引下 可能性
  - OPEC의 油價引下 決定에 對應하여 英國의 國營石油會社(BNOC)가 追加 引下할 경우 (30.5달러→29.5달러) 油質이 비슷한 나이지리아(現在 30.0달러)가 競爭力 弱화를 우려

公示價格과 主要油種間 價格差

(單位: 달러/배럴)

	油 種	세로결정된 價格差	各國이 이번 決定을  따른  경우의 公示價
사 우 디	Light (34°)	0.00	29.
	Berri (39°)	0.52	29.52
U A E	Murban (39°)	0.56	29.56
카 타 르	Marine (36°)	0.30	29.30
이 라 크	Kirkuk (36°)	0.47	29.47
알 제 리	Saharan (44°)	1.40	30.40
리 비 아	Zueitina (41°)	1.20	30.20
나이지리아	Bonny (37°)	1.02	30.02
인도네시아	Minas (34°/35°)	0.85	29.85
	Ardjuna (37°/38°)	1.00	30.00
베네수엘라	Lago light (41°)	1.60	30.60

\* 이번 OPEC 臨時總會에서 決定된 價格差는 82年 3月에 決定된 價格差와 같다. 다만 나이지리아產 高級油에 附加하는 價格差만 82年 3月の 배럴당 1.52달러에서 1.02달러로 50센트 縮小되었다.

하여 油價引下를 하게되고, 이렇게 되면 OPEC 公示價의 再次 引下도 考慮하여야 할 것임.

○上記의 諸要因으로 인하여 原油價는 當분간 계속 下落할 展望임.

—主要機關別 短期 油價展望

(單位 : 달러/배럴)

機 關	油 價
英 AMEX 銀行	25
Kiel大 에너지 經濟研究所	25
英 Euromoney	25以下
베네수엘라 石油相	25
파라 前 OPEC 事務局長	26~30
자코비 MIT 教授	{ 1단계 : 28 2단계 : 20

○그러나 20달러/배럴 以下로의 下落 可能性은 거의 없음.

—OPEC 產油國의 平均 產油 코스트가 83年 거의 20달러 水準에 도달한 實情임.

나. 中·長期 展望

○油價 引下期間은 2年을 超過하지 않을 展望임.

—油價引下の 幅이 大幅이거나 引下추세가 長期化될 경우 產油國 經濟가 심각한 打擊을 받게 되기 때문임.

○따라서 油價는 1985年 以後 再上昇할 것으로 展望됨.

○機關別 油價展望

—체이스 맨하탄 (Chase Manhattan) 銀行

●1985年 : 32.64 달러/배럴

●1990年 : 40.74 달러/배럴

—美 에드워드 (Edwards) 前 에너지 長官

●1985年 : 現 水準 (34달러/배럴)

●1986年 以後 : 年平均 5~7%씩 上昇

—1983~84年의 油價引下 期間에 「低油價—高需要」 現象이 深化되면 또다른 石油波動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음.

○中·長期 油價展望 綜合

—石油價格은 1985년까지는 下落勢 또는 保合勢 維持, 1980年代 後半 以後 上昇勢 予想

●長期的으로 볼 때 油價는 代替에너지의 供給 코스트 水準까지 上昇될 展望

●石油의 供給不足은 不可避한 實情임.

### III. 油價下落이 미치는 影響

#### 1. 世界經濟에 미치는 影響

가. 世界國際收支의 構造的 變化

○82年의 世界國際收支를 그룹별로 보면, 先進國은 收支均衡을 이루어가고 있고, 石油輸出國은 經常收支 黑字가 大幅 減小되었으며, 非產油開途國은 꾸준한 赤字 減少 추세를 보이고 있음.

○油價가 25달러/배럴까지 大幅 引下될 경우에는 先進國은 年間 360億달러, 非產油開途國은 180億달러의 經常收支 黑字를 보일 것이며, 石油輸出國은 540億달러의 經常收支 赤字로 反轉하게 될 것임.

○結局 油價引下는

① 原油輸入國의 負擔을 輕減시키고,

② 原油輸出國의 石油收入을 減少시켜

世界國際收支上 커다란 變化를 惹起시킬 것임.

世界의 經常收支 推移와 展望

(單位 : 億달러)

	80	81	82	83 展 望	
				油價引下前	油價가 25달러로 引下될 경우
先進國	-606	-10	-40	-100	+360
開途國					
石油輸出國	1,143	650	10	30	-540
非產油國	-889	-1,033	-900	-700	+180
(石油輸入)	(630)	(670)	(670)	(700)	

〈資料〉 実績 및 83年 展望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Jan. 1983.

나. 實質 GNP의 成長과 物價鎮靜

○油價 10%引下가 實質 GNP와 인플레이에 미치는 影響

—OECD의 경우

	1 次年度	2 次年度
實質GNP (%)	0.1~0.3	0.1~0.6
인플레 (%)	△ 0.3~△0.5	△ 0.5~△0.9

○油價가 배럴당 25달러로 下落할 경우, GNP의 0.75%정도의 景氣刺戟 效果 期待 (AMEX 銀行 展望)

(單位: %)

各國의 借入條件比較('82. 12~'83. 2月)

	OECD 展望		油價가 25달러일 경우	
	GNP成長	消費者物價	GNP成長	消費者物價
美 國	2.0	5.5	2.75	4.5
캐 나 다	1.25	7.5	2.2	6.5
日 本	3.5	3.25	4.25	2.25
프 랑 스	0.5	9.0	1.25	8.0
西 獨	△ 0.25	3.75	0.5	2.75
이 탈 리 아	0.25	15.75	1.0	14.75
英 國	1.0	6.0	1.75	5.0

〈資料〉 AMEX Bank Review.

〈註〉 OECD 展望은 「1982. 12. OECD Economic Outlook」에 의함.

國 家	'82. 10~11月	'82. 12~'83. 2月	
아	인도네시아	LIBOR+0.38%	LIBOR+0.5% 및 美 Prime rate에 連動
	韓 國	LIBOR+0.5%	LIBOR+0.5~0.625%
시	美 Prime rate+0.2%	美 Prime rate+0.2%	
	필 리 핀	LIBOR+0.6~0.7%	LIBOR+0.875%
아	(年中)	美 Prime rate+0.5%	
	말레이시아	LIBOR+0.375% (年中)	LIBOR+0.5%
中	브 라 질	LIBOR+2.13~2.5%	LIBOR+2.3%
	美 Prime rate+1.25~0.88%	美 Prime rate+1.88%	
南	칠 레	LIBOR+1.38~1.75%	LIBOR+1.75%
	美 Prime rate+1.0%	Prime rate+1.1~1.63%	
美	멕시코	LIBOR+2.0~2.23%	LIBOR+1.3%
	베네수엘라	LIBOR+1.13~1.5%	美 Prime rate+0.13%
유	그 리 스	LIBOR+0.5%	LIBOR+1.38%
	엔 마 크	LIBOR+0.375% (年中)	美 Prime rate+1.23%

○ 이와 같이 油價下落은

直接的으로 消費者의 油類 消費支出 費用을 節減하고, 間接的으로는 全般的인 인플레이션으로 實質購買力을 增加시킴.

○ 이에 따라 世界經濟는 全般的으로 景氣가 回復될 것이며, 先進國의 經濟政策은 成長促進의인 基調를 維持할 것임.

다. 國際金融市場의 借入條件惡化

○ 82년에 國際金融市場事情이 크게 惡化되었음.  
— 産油國의 新規預금이 80년 이후 減少하여 오다  
다 82년에는 純借入國으로 轉落

— 先進國의 新規預金 增加도 微微한 實情  
— 非産油開途國의 借入條件 不利해짐.

○ 國際金融市場 不安要因 尚存으로 國際金利도 保合내지 小幅 上昇勢 示顯  
— 國際信用 不安持續으로 리스크를 補填하기 위한 銀行들의 高金利 確保 必要

○ 油價下落으로 OPEC諸國의 오일머니減少, 餘裕資金의 美財務省証券(TB)에의 集中, IBFs 로의 資金移動으로 특히 유럽 市場 縮小 展望  
→ 借入條件도 계속 惡化될 것이 豫想됨.

○ 以上の 要因으로 인하여

〔 國際金融市場의 加算金利 (spread) 上昇  
借入國別 差異擴大  
償還期間 短縮  
借入條件이 惡化될 것임. 〕 等

라. 非産油開途國의 景氣好轉 및 輸出增大

○ 油價下落으로 原油輸入代金の 節減效果

— 非産油開途國의 경우 原油輸入이 總輸入中 차지하는 比重이 무려 20% 정도나 됨.

	81年原油輸入	總輸入中比重	節減效果 (油價가 25달러일 경우)
브 라 질	11,723	30	2,564
印 度	6,022	30	1,317
韓 國	6,376	24.6	1,395
泰 國	2,164	18	473
필 리 핀	2,081	18	455
유 고	2,945	15	644
케냐	230	9	50
파 키 스탄	1,137	16	249

〈資料〉 AMEX Bank Review

○ 油價下落→先進國 景氣振作→開途國의 輸出增大 및 景氣好轉 誘發.

— 先進國 實質 GNP 1% 增加는 開途國 輸出 1.9% 增大效果 誘發

○ 인플레이션 鎮靜 및 國際收支改善에 따라 國際金利 下落

→ 이는 非産油開途國의 對外債務 輕減

→ 景氣好轉

마. 國際金利 및 換率에의 影響

○油價引下의 國際金利에 대한 影響은 短期的으로는 保合 또는 上昇要因으로 作用하고, 長期的으로는 下落要因이 될 것으로 展望됨.

— 이는 油價下落 → 物價安定 → 金利下落이 原則이지만, 短期的으로는 世界金融市場의 不安要因이 內在해 있기 때문임.

○油價下落으로 인한 主要國의 換率展望

- 産油國의 國際收支惡化 → 英國 파운드의 弱화
- 原油輸入依存이 相對的으로 큰 國家의 國際收支 改善이 큼. → 日本円貨 및 西獨 마르크 貨 強勢
- 國際金融市場의 危機 및 國際金融秩序의 崩壞 憂慮
- 美 달러貨 強勢

2. 産油國에 미치는 影響

○82年中 이란을 除外한 大部分의 産油國이 油價下落과 輸出物量의 減少로 石油收入 急減.

○83年中 油價下落으로 外換收入 계속 減少될 展望

- 石油輸出國의 石油收入推移

(單位: 10億달러, %)

	18.9.1	1982	比 重
사 우 디	113.2	75.0	99
리 비 아	18.5	10.6	99
이 라 크	12.2	9.4	98
베 네 수 엘 라	19.0	16.0	95
나 이 지 리 아	18.3	13.0	94
이 란	9.8	16.0	93
U A E	18.8	12.0	93
알 제 리	10.8	7.5	92
쿠 웨 이 트	14.9	9.0	85
멕 시 코	13.8	13.0	71
인 도 네 시 아	14.0	9.5	63

(註) 比重은 總輸出에 대한 石油收入 比重임.

○産油國은 外換收入 減少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影響을 받게 될 것임.

- 輸入 減少(商品輸入)
- 海外借入의 增大
- 開發 프로젝트의 縮小와 經濟成長의 鈍化
- 産油國의 評價切下 可能性

3. 國內經濟에 미치는 影響

가. 原油輸入負擔 輕減으로 貿易收支 改善

○原油輸入代錢의 大幅 輕減

OPEC 基準油價 29달러/배럴: 5 달러 價格引下

1983年度 原油導入計劃量 : 188百萬배럴

油價引下時期 : 83. 4. 1(豫定)

일 경우

83年度 原油輸入節減額은 約 705百萬달러에 達할 것임.

$$: 188 (\text{百萬배럴}) \times 5 (\text{달러}) \times \frac{12-3}{12} = 705 \text{百萬달러}$$

— 原油價가 25달러/배럴 水準으로 下落하면, 原油輸入에 따른 節減額은 年間 約 17億 달러에 이를 것임.

$$: 188 (\text{百萬배럴}) \times (34-25) \text{달러} \times 1 \text{年} = 1,692 \text{百萬달러}$$

○總輸入中 原油輸入 比重이 低下될 것임.

→ 貿易收支改善에 寄与

	1980	1981	1982
原油導入量 (千배럴)	182,816	180,316	178,369
原油導入額 (百萬달러)	5,430	6,280	5,850
總輸入中比重(%)	25.3	24.6	24.5

나. 物價安定에 寄与

○油價下落이 物價上昇鈍化에 寄与

— 原油價下落 → 石油類製品價下落 → 關聯製品價下落.

— 投資活動再開로 Demand-Pull物價上昇要因除去

— 油價下落 → 인플레이心理 拂拭 → 金利, 賃金 등 原價安定에 寄与 → 物價安定 誘發

○OPEC 基準油價가 29달러로 下落한 경우, 年 2.6%의 都壳物價 下落要因이 發生하고, 12.2%의 國內油類價 引下要因이 發生

— 國內油類價 引下要因

$$: 5/34 \times 0.503 + 5/32.77 \times 0.497 = 14.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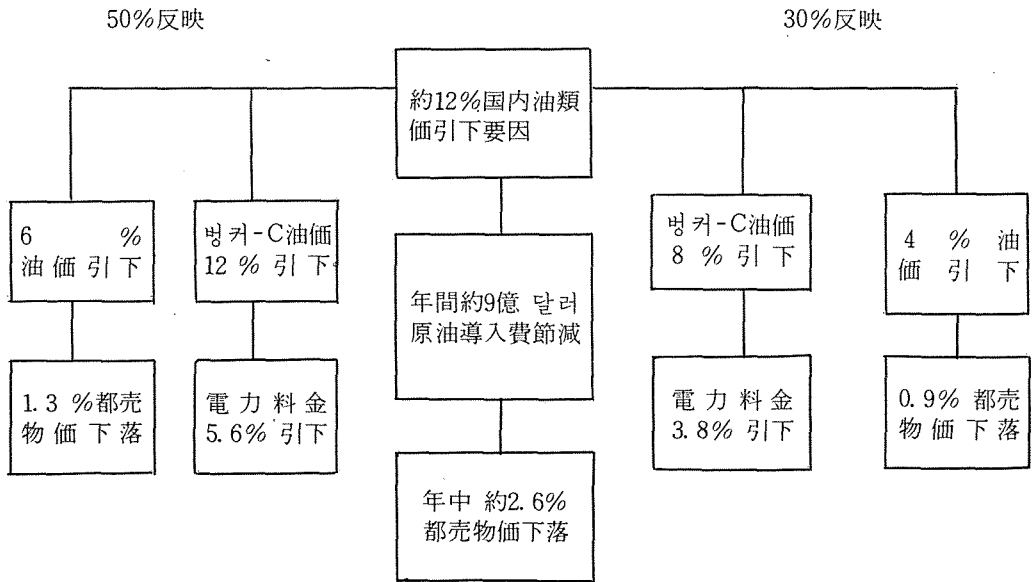
$$14.97 - 2.77 (\text{換率上昇要因}) = 12.2 (\%)$$

○OPEC 基準油價 29달러의 波及效果

다. 先進國 景氣回復으로 輸出增大

○IMF 予測에 따르면,

世界交易量 1% 增加時, 非産油開途國의 輸出은 2.5% 增大되고, 先進國 實質GNP 1% 增加는 開



途國輸出 1.9% 增大效果를 誘發할 것으로 展望.

○ 따라서 油價가 下落되면 油價下落 → 先進國 景氣回復 → 實質GNP增加, 交易量 擴大 → 우리 나라의 對先進國 輸出增大가 期待됨.

○ 輸出增大로 인한 GNP成長效果 測定

— 油價 5달러 下落(29달러/배럴)이 世界交易量을 1% 增加시킬것으로 볼때, 우리 나라의 實質商品 輸出增加는  $2.5\% \times \frac{197}{216}$  (非中東輸出比重)

— 따라서 GNP成長效果는 약 0.68%로 推定됨.  
:  $2.28 \times 0.3$  (輸出에 대한 GNP 彈性值) = 0.68%

○ 對中東 商品輸出의 減少

— 產油國의 外換事情 惡化로 對產油國 輸出減少 豫想.

— 특히 中東商品輸出의 70~80%가 建設輸出과 關聯된 製品이므로 油價下落으로 海外建設이 不振해질 경우 商品輸出도 減少할 것임.

— 對中東 輸出依存度 및 輸出主宗品

	1980	1981	1982
總商品輸出額	175	210	216
對中東輸出額	18.2	22.5	19.0
輸出依存度	10.4	10.7	8.8
輸出主宗品	鐵鋼材, 시멘트, 合板, 纖維, 타이어		

라. 實質GNP의 上昇效果

○ 實質GNP 上昇要因

— 油價下落으로 物價上昇 鈍化에 따른 實質所得의 增大

— 消費 및 投資 擴大

— 國內外 景氣好轉으로 인한 輸出增大

— 產油國으로의 所得移轉 縮小 → 國內 有效需要 誘發 → 景氣活性化

— 마이너스 要因을 相殺할 수 있음.

● 海外建設 外貨入金 減少

● 對中東 商品輸出 減少

○ 原油價 10% 引下時,

國內 實質GNP 成長率은 1次年度에 0.16%, 2次年度에 0.48% 정도 높아질 展望임. (日本經濟企劃廳 試算)

○ 原油價가 30달러/배럴로 下落하면,

우리 나라의 GNP成長效果는 綜合的으로 約 0.32% 增加될 것으로 보임. (KDI試算)

마. 海外建設受注의 減少

○ 海外建設 新規受注 急增趨勢에서 82년에는 前年 對比 減少함.

— 新規受注額

80年: 83億달러 → 81年: 137億달러 → 82年: 134億달러

- 海外建設에 따른 外貨收入도 增加率 鈍化

81年 : 21.7 億달러 → 82年 : 24.5 億달러

○ 海外建設 新規受注는 油價下落이 없는 경우에도 83年 以後 減少될 展望이었으나, 油價가 이미 29 달러로 下落하였기 때문에 減少幅이 늘어날 것으로 豫想됨.

- 油價下落이 없을 경우

83年 新規受注額 展望 : 100 億달러

- 油價가 29 달러인 경우

83年 新規受注額 展望 : 90 億달러 以下

海外建設 新規受注

(單位 : 億달러)

	1980	1981	1982
總 新 規 受 注	83	137	134
中 東	78	127	114
構 成 比 (%)	95.0	93.0	85.0

#### IV. 油價下落에 따른 産業別 對應戰略

##### 1. 国内産業에 미치는 影響

가. 企業의 コスト 節減으로 産業活動 活性化

○ 油價下落 → 企業의 費用 또는 原價節減 招來 → 企業生産의 活潑 → 投資 및 雇傭增大 → 産業活動 活性化

○ 企業의 コスト 節減으로 특히 에너지 多消費産業의 國際競爭力(價格)回復 내지 強化

- 우리 나라는 日本 및 美国 등 先進國에 비하여 節約投資가 未洽한 實情이므로 油價引下에 따른 相對的 報酬은 오히려 더 큼.

○ 企業의 コスト 節減效果別 Grouping

- 油價引下에 따른 原油節減效果의 順位

1 順位	시멘트, 其他非金屬鑛物製品,  유리
2 順位	알루미늄,  조미료, 新聞用紙,  펄프,  크라프트紙, 合成纖維
3 順位	비누, 合成樹脂, 綿織物, 製鋼, 毛紡織, 木製品, 鐵鋼, 工作機械
4 順位	타이어 및 튜브,  가말,  설탕, 産業機械, 電氣·電子, 造船, 時計

○ 總原價中 油類·電力構成比

	總原價中 構成比		
	油 類	電 力	合 計
製 造 業 全 體	2.5	2.8	5.3
食 料 品 業	2.2	1.6	3.8
설탕	2.8	2.2	5.0
織 維 業	2.6	3.1	5.7
木 製 品	2.4	1.9	4.3
紙 製 品	3.5	5.2	8.7
펄프	5.6	8.7	14.3
化 學	2.3	1.9	4.2
非金屬鑛物製品	25.8	10.1	35.9
유 리	28.1	5.2	33.3
鐵 鋼	0.3	5.3	5.6
非 鐵 金 屬	3.0	5.6	8.6
알 루 미 늬 음	0.4	26.2	26.6
産 業 用 機 械	0.7	2.8	3.5
電 氣 機 械	1.0	1.3	2.3
造 船	0.2	1.6	1.8
自 動 車	0.7	1.2	1.9

나. 産業部門別 諸影響

1) 好調産業

〈好調要因別 對象業種〉

○ 原價節減效果가 큰 産業

- 油價가 下落되면, 大部分 産業의 에너지費用 比重이 減少, 특히 에너지 多消費業種이 有利.

● 鐵鋼, 非鐵金屬, 非金屬鑛物(유리·시멘트), 石油化學, 化纖

○ 內需增大效果가 期待되는 産業

- 自動車: 自動車 維持費의 輕減期待

- 鐵 鋼 } : 關聯需要産業의 活性化로 內需增大  
非鐵金屬 }  
機 械 }

- 시멘트: 油價引下로 国内 建築景氣 浮揚

○ 輸出好調가 期待되는 産業

- 織 維: 특히 化纖部門은 價格競爭力 強化  
- 電 子: 先進國景氣의 回復에 따른 輸出需要 增大

- 其他 先進國 輸入쿼터 制限의 완화가 期待되는 業種

● 신발, 타이어, 織物類



2) 惡化産業

(惡化要因別 對象産業)

○에너지源 代替現象에 따른 需要減退

- 石 炭: 脫石油政策의 推進으로 그동안 石炭需要 急激히 增加, 油價引下로 石炭需要 減少豫想.
- 代替에너지: 에너지情勢의 安定으로 代替에너지 開發不振
- 撤物船: 原料炭 需要減少로 인한 撤物船 新規 發注 需要減退

○逆오일쇼크로 인한 沈滯業種

- 海外建設: 産油國의 石油收入 減少로 投資減少  
→ 建設工事遲延 또는 計劃取消
- 對産油國 輸出比重이 큰 品目の 輸出減少
  - 시멘트 48.0% (對中東 輸出依存度)
  - 合纖織物 18.4% (對中東 輸出依存度)
  - 鐵鋼材 15.9% (對中東 輸出依存度)

2. 油價下落에 따른 産業別 對應戰略

가. 油價引下時 考慮하여야 할 各産業別 對應策

對 應 戰 略	
鐵 鋼	○生産原價節減이 製品價引下로 連結될 경우, 經營收支好轉 期待難→高級鋼 내지 高附加價值 製品開發에 注力. ○一貫製鐵所(第2製鐵)建設推進, 電氣爐 및 壓延施設의 適正規模化, 省에너지 및 合理化投資의 持續. ○海外需要吸收을 위한 마케팅 戰略등 販賣活動 強化.
非鐵金屬	○現在 使用中인 에너지節約型施設의 利點을 살릴 수 있는 製鍊技術의 定着, 技術的인 改善(銅·亜鉛製鍊의 경우) ○製鍊工法의 改善(알루미늄·鉛의 경우)으로 에너지費用의 節減.

3) 油價引下에 따른 産業部門別 影響

	原 価 面	需 給 面 (內需·輸出)	投 資 面 (設備投資·省에너지)	其 他
鐵 鋼	• 6~9%의 原價 節減	• 內需增大 • 輸出有利	• 投資回復 • 에너지節約設備投資持統	• 美國 EC등의 輸入 規制政策 持統
非鐵金屬	• 銅 0.5%節減 • 亜鉛 2.6%節減 • 알루미늄 3.3%節減	• 內需增大		
機 械	• 節減效果 별로없음	• 內需增大 • 輸出增大	• 改補修投資進行	
自 動 車	• 製造原價面의 影響 별로 없음	• 內需增大 • 輸出增大	• 投資促進期待難 - 1982稼働率: 45%	• 車種의 變化가 완만 해질 것임.
電 子	原價영향 적음	• 輸出增大(先進國의 需要增加)	• 家電 및 産業用電子機器의 投資誘發	• 省에너지를 위한 電子化 鈍化
石油化学	• 油價1%下落時 에틸렌原價0.87%節減	• 內需 크게 好転→內國産製品덤핑鈍化	• 設備投資活性化 - 合纖原料部門 - BTX部門	• 油價構造에 따라  영향 相異
織 維	• 染色加工業, 化纖部門의 原價節減	• 對産油國輸出減少 • 對先進國輸出增加		• 老朽施設改替 時点
시멘트	• 燃料代替로 큰 影響 없음 - 輸入有煙炭價 下落	• 輸出增大 • 對中東輸出伸張制約	• 燃料代替 中止	
造 船	• 電力料引下로 인한 費用節減경도	• 유조선物動量增加 • 撤物船 新規需要 減退		• 試錐船, LPG 및 LNG 船으로의 開發 投資 時点

對 應 戰 略	
機 械	○海外 機械受注 增加에 對備한 A/S 體制 擴充 및 海外販賣鋼 設置의 強化. ○國産化率 및 品質向上을 위한 部品 工業의 重點育成.
石油化學	○無理한 施設擴張은 抑制 (油價引下 期間이 短期間임을 감안) ○産業體制의 整備 - 團地別 生産段階 一元化에 의한 原價節減 ○石油化學安定基金의 設置 - 油價引下로 인한 收益의 一部分을 同基金에 出捐 ●向後 나프타價格 不安定에 對備
電 子	○C-TV등의 現地生産을 통한 國際 化戰略 - 輸入쿼터制限이 緩和되지 않을 展望. ○産業用 電子機器의 技術開發
織 維	○新規投資를 통한 施設擴張을 止揚 - 生産 및 輸出活動이 急増할 것으로 展望되지 않음. (中東地域의 輸出減少로 相殺豫想) ○化纖部門의 新素材開發, 染色加工部門의 老朽施設改替, 持續的인 省에너지投資
시 멘 트	○새로운 燒成技術의 導入 및 開發促進 ○에너지 원단위 下向調整 및 輸送費 負擔의 縮小
自 動 車	○輸出市場의 積極적인 開拓 - 마아케팅強化를 통한 輸出市場의 多邊化 ○輸出競爭力의 提高 ○新工場建設에 注力(現代自動車)

나. 에너지政策의 伸縮의 運用

- 1) 油價下落到에 따른 에너지政策 對應
- 油價引下分의 適切한 反映.
  - 不確實한 石油事情에 對備하여 油價引下幅中 一部를 基金으로 吸收.
- 效率的인 産業支援財源으로 造成
  - 에너지産業支援, 産業構造調整支援, 技術開發 支援等

- 특히 精油産業의 健全育성을 위한 支援 講究
  - 重質油 分解施設 投資支援
  - 脫黃施設 投資支援
- 2) 에너지政策의 伸縮의 運營
- 油價下落到에 따라 「脫石油政策」의 無理한 推進 止揚.
  - 原子力發電所 建設計劃의 延期(11, 12號基의 경우)
  - 有煙炭 및 無煙炭 輸入計劃의 調整
- 石油價格制度의 合理的 改善
  - 歪曲된 國內 油類價格構造의 國際化 誘導
  - 政府規制를 可及의 縮小시키는 價格制度의 講究 → 漸進的인 油價自律化 推進
    - 油價의 政府部門費用의 縮小
- 逆오일쇼크를 입은 에너지産業部門에 대한 支援 策 講究.
  - 石炭産業의 綜合支援策 樹立
  - 代替에너지 開發의 推進事業 支援
- 3) 에너지節約 및 利用合理化 持續的 推進
- 長期的으로 石油價의 安定을 樂觀할 수 없기 때문에 石油依存度 減縮 및 에너지 消費節約 努力의 持續的 推進이 必要
- 에너지利用 效率向上 및 代替에너지 開發의 계속 推進
- 에너지節約 施設資金 및 에너지利用 合理化基金 財源의 擴充

(※) 國內外 油價引下 反映事例

1. 政府의 油價引下 反映原則

- 實務對策班의 構成('83. 2. 22)
  - 原油價 下落到에 따른 國內 油類價格 調整과 反映의 幅 등을 國家經濟 全體의 立場에서 綜合 檢討.
  - 經濟企劃院, 財務部, 商工部, 動資部, 建設部 등 經濟部處 局長級으로 構成.
- 油價引下 反映原則
  - 引下分의 30%만 國內 油類價에 反映
    - 産業用 燃料 및 原料인 벙커C-油, 나프타에 이를 反映 → 國際競爭力 弱化要因 除去
    - 民需用 등 其他 油種의 價格은 現行維持原則

→ 石油需要增大 抑制

- 引下分の 70%는 石油事業基金과 關稅로 吸收

- 留保資金은 에너지節約型 産業構造 改編과 水資源開發事業에 集中 支援

→ 中東建設進出業體의 遊休裝備 活用으로 臨溪峴등 7個峴 '87年까지 早期完工 豫定

- 延拂輸出 支援

○ 原油價 引下分 (5 달러/배럴)의 配分內容

	配分比	配分額	活 用 方 案
石油事業基金	41%	배럴당 2.05 \$	○에너지利用合理化, 石炭備蓄 ○建設등 經濟脆弱部門 支援 ○延拂輸出 支援
関 稅	29%	배럴당 1.45 \$	○油價引下에 따른稅收缺損 充當
나프타 및 벙커-C油價格 引下	30%	배럴당 1.5 \$	○油價構造 改善 ○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

(註) 石油事業基金 吸收分은 거의 石油安定基金에 吸收될 展望이고, 関稅는 5% 徵收 豫定임.

○ 国内 油類價格 下落豫想幅

- 벙커-C油: 7~8%
- 나 프 타: 4~5%
- 電力料金: 4%
- 其他油種: 前과同一

## 2. 各國의 油價引下 反映事例

- OPEC公示價, 29달러로 引下됨에 따라-

가. 主要先進國의 경우

○ 美 國

- 国内 油類價格이 市場競爭原理에 基礎하고 있기 때문에 82年 2/4分期 以後 国内油價가 점차 下落되었음.
- 追加引下要因의 發生餘地는 別로 크지 않음.

○ 日 本

- 国内油價가 13個 石油販賣會社의 自律競爭으로 決定
- 約 10% 程度 製品價 引下 豫想

○ 西 獨

- 国内油價가 유럽現物市場 原油價에 거의 連動되고 있음.
- 따라서 82. 10以後 国内 油類價格이 續落하여

現物市場 時勢가 国内油價에 이미 反映되었음.

○ 프 랑 스

- 国内油價가 유럽現物市場과 달러貨 變動에 의하여 每月調整

- 82. 12月부터 이미 4차례 引下 調整

- OPEC公示價 引下로 4. 13日부터 国内油價 3. 2% 引下豫定

- 油價引下分中 一部를 石油類稅로 吸收하여 財政亦字 縮小計劃

나. 主要競爭國의 경우

1) 共通事項

○ 大部分 東南亞 開途工業國인 이들은 2次에 걸친 石油波動의 衝擊으로 国内 油類價 引下에는 매우 慎重한 反應.

○ 相互 競爭關係에 있기 때문에 他國의 油價引下 決定을 예의 주시하고 있음.

○ 共通된 油價引下 政策方向

- 關稅로 油價引下分 一部를 吸收하여 次期 原油價 上昇에 對備
- 石油消費增加를 抑制하는 범위內에서의 国内油價가 引下

2) 國別動向

○ 日 本

- 原油價 下落의 一部는 關稅 및 基金으로 吸收할 計劃

○ 台 灣

- 輸出産業의 競爭力 確保를 위하여 한국等 競爭國의 石油價格 引下 決定 以後 国内油價를 決定할 方針
- 油種에 따라 3. 4~16. 2% 引下決定 (3. 17日)

○ 香 港

- 石油類價格이 市場機能에 一任되어 있음.
- 따라서 OPEC 引下分 全體가 国内油價에 反映될 展望

○ 싱가포르

- 国内 石油製品價 10~12% 引下 決定 (3. 17日)
  - 揮發油 10.5%
  - 벙커-C油 11.0%
  - 輕油 12.2%
- } 引下

\*